

코로나19 대비 투표관리대책 추진

전북도선관위, 도내 투표소 대상 투표 전달까지 방역소독 실시·완료 후 개시 전까지 외부인 출입 금지 투표소에 갈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입구서 발열 체크 후 손 소독하고 위생장갑 착용하고 입장해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유권자들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 투표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30일 도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제21대 총선 투표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해 안심 투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30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4·15총선 도내 243개 사전투표소와 615개 선거일 투표소에 대해 투표 전달까지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방역완료 후에는 투표개시 전까지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할 예정이다.

투표소에 가는 선거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투표소 입구에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체크 후, 발열이 없는 선거인은 비치면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뒤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가야 한다.

반면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할 예정이며, 임시 기표소는 주기적으로 소독한다.

또한 ▲모든 투표사무원과 참관인 마스크 및 의료용장갑 착용 ▲투표소 출입문 및 투표소 물품·장비 등 수시 소독 ▲선거인간 줄 간격 1m이상 유지 ▲투표소 주기적 환기 등으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한다.

한편 도선관위는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거거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받았다.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거소투표신고를 한 확진자는 병원,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에서 거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거소투표신고기간 후 확진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사람을 위해 사전투표기간(4월 10~11일)에 지정된 생활치료센터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일정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전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4·15 총선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정했다"면서 "마스크 착용하고 투표소 가기,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 받고 손소독 후 비닐장갑 착용하기, 투표소 안·밖에서 대화 자제 및 1m이상 간격 두기, 본인확인시 마스크 잠깐 벗거나 살짝 내리기 등의 행동수칙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금융·한류 중심 전북 건설’

민생당 도당, 5대 비전 33개 총선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만으로는 안 된다. 개혁 우군 민생당이 있어야 합니다." 민생당 전북도당이 4·15 총선 16일을 앞두고 5대 비전, 33개 세부공약을 발표하며 도민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다.

30일 오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 유성엽 당 공동대표(정읍·고창)와 정동영(전주명)·조배숙(익산)·김경민(김제·부안)·조형철(전주)·고상진(익산) 국회의원 후보와 채영병 기초의원 후보 등이 한자리에 모여 제21대 총선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경민 전북삼임공공선거대책위원장의 후보 소개에 이어 정동영 후보는 '전북도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지난 4년 민주당은 도민께 약속만 했지 지켜진 게 없으며, 29일 이낙연 전 총리가 군산을 찾아 군산조선소 정상 가동에 모든 것을 쏟아 붓겠다고 했지만 총리 때도 이루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만으로는 안 된다. 민생당은 보수적페 세력을 제외한 4+1 연합정치로 개혁 우군과 함께 했다. 개혁우군에 민생당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성엽 대표는 제21대 총선에 앞서 전북을 부강하게 만들고 전북도민이 행복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전북도당이 5대 비전을 마련했다며 ▲금융·한류 중심 전북 ▲첨단융복합산업 중심

전북 ▲연간 1억원 관광 중심 전북 ▲농생명산업 중심 전북 ▲생거중심 전북 건설 등을 발표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국민 1인 재난극복수당 50만원 지원 관철 ▲중소상공인 임대료 직접 지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신용등급 무관 긴급경영자금 대출 지원 등 97가지 공약도 발표했다.

유 대표는 "전북은 이제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며 "첨단산업과 농생명이 결합된 융복합 선도지역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후보는 민생을 위한 정치가 필요한만큼 민생당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하고, 조형철 후보는 녹록치 않은 선거이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전북을 위한 정당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고상진 후보는 경쟁상대인 민주당 김수홍 후보를 겨냥해 전북도정의 익산 이전과 관련해 김승수 전 주시장이 '충분히 실현가능하다'고 했는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유성엽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민생당은 전북의 집권 시대를 열 수 있는냐는 의미의 선거라고 생각한다"며 "힘을 모아 오랜 숙원을 이루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약속했다.

한편 이날 자리를 함께한 후보들은 서로 얹어주는 퍼포먼스도 보였다. /특별취재반

KBS전주방송총국, 내달 총선 법정·초청토론회

1일 밤 10시부터 90분동안 익산을 후보자 토론회부터 3·6일 전주잡·을, 7일 군산, 8일 정읍·고창, 전주병 등 진행

KBS전주방송총국(총국장 이재강)은 '4.15 총선'을 앞두고 전북도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각 선거구별 후보자 간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4월 1일 밤 10시부터 약 90분간 KBS전주방송총국 1층 공개홀에서는 KBS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익산시를 선거구 후보자들의 초청 토론회가 열린다.

오는 3일과 6일에는 오후 2시부터

약 90분간씩 전주시완산구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가 주관하는 전주시잡과 전주시를 선거구에 대한 법정토론회가 각각 진행된다.

아울러 토론회 끝나면 토론회 후보자 외에 총선에 도전장을 던진 후보가 나와 출마의 변을 밝히는 연설의 시간도 마련된다.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는 군산시 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가 주관하는 군산시선거구 법정토론회와 초청 의 후

보의 연설이, 8일 오전 10시부터는 정읍시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 주관 정읍시·고창군 선거구 법정토론회, 같은 날 밤 10시 10분부터는 전주시병 선거구에 대한 KBS 자체 초청토론회가 각각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9일 오후 2시부터는 김제시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 주관으로 김제시·부안군 선거구의 법정토론회와 초청 의 후보 연설이 방송된다. /특별취재반

김영병 의심되면 '1339'로

4·15 총선 후보자 이모저모

김윤덕, "문 대통령 코로나19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결정 환영"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저소득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3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전주잡 국회의원 후보는 30일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논평에서 김 후보는 "'코로나 19'는 국민은 물론 방역 주체인 정부를 비롯한 의료인 등까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 또한 감염 우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가계가 경제적 타격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저소득층은 생계까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가운데 소득하위 70%에 달하는 가구 전체에 재난지원금을 즉시 지급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결정은 매우 유호적절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환영했다. /특별취재반

최형재 "대중국 해저터널로 전주의 더 큰 발전" 주장

무소속 최형재 후보(전주)가 "새만금과 산동반도를 잇는 대중국 해저터널을 통한 전주의 더 큰 발전"을 주장하고 나섰다.



최형재 후보는 3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김제, 완주와 통합한 상생융합도시가 전라북도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중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중국 해저터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에서 중국 산둥성 스텝다오항까지는 약 390km로 KTX로 달리면 90~120분 정도가 소요되는 거리"라며 "해저터널은 터널이 시작하는 새만금 지역이 부산항을 능가하는 대한민국 물류허브 1번지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지금 지역의 영속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발상과 전기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고 "쇠락해 가는 지역 발전과 함께 지역 소멸 위기를 벗어나 새로운 황금기를 만들어 전주가 대한민국의 중추도시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특별취재반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신영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위해 국회의원직 걸겠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후보(군산)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 후보 등록을 마친 신영대 후보는 '뒤로! 8년, 앞으로 갈 신영대!!'라는 슬로건을 걸고 지역 주민들의 표심잡기에 나섰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신 후보는 지난 2017년 7월 가동이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국회의원직을 걸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신영대 후보는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함께 ▲중앙공공기관 유치 ▲전기차클러스터 구축 및 강소특구 지정 추진 ▲새만금, 고군산, 근대역사지구 등 있는 국제 관광거점 사업 추진 ▲군산 수산업 제2부흥시대 선도 등 5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지역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민생분야 7대 전략 및 50대 추진과제를 선정해 군산시의 경제 위기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다음으로 신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시민들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소속 중심의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취재반

안호영, 대전·충남·경남 후보와 '대진철도 건설' 추진 힘 모으기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후보(완주·진안·무주·장수)가 같은 당 대전·충남, 경남 후보들과 함께 대진철도 건설을 추진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안호영 후보는 박병석 후보(대전 서구갑), 김종민 후보(충남 논산·계룡·금산), 서필상 예비후보(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와 함께 대전·금산·무주·함양·산청·진주를 연결하는 대진철도 건설을 추진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추진위원회에 5선 의원인 박병석 후보를 추대했다. 과거 116여만 명이 서명해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채택했던 대전~진주간 내륙철도는 경제적 타당성과 지역균형개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계획(2021~2030년)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대진철도가 건설되면 낙후된 무주군 등 전북 동부 산악권과 우리나라 남부지역 중심부를 관통하고, 수도권과 지리산 국립공원, 남해안 한려수도를 연결하는 철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별취재반

임정엽 "농촌 인구감소 등 문제 해결 지방거점 국립대부터 무상교육 추진"

무소속 임정엽 후보(완주·진안·무주·장수)가 대학까지 책임교육 시행 등 교육 공약이 지역 학부모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임 후보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촌 인구감소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농산촌 지역 학생과 지방거점 국립대학부터 '대학 무상교육' 정책을 전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대학진학률과 대학 등록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농산촌 학생의 70.4%가 모두 4년제 대학에 진학한다고 가정했을 때 추가 예산은 최대 1,416억 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난 2016~2017년 완주군 대학생 수 2,600여명 기준 국립대학교와 사립대 진학을 5:5로 가정할 때 연간 소비비용은 약 66억 원에 불과했다. 임 후보는 "완주군장 등 특정 읍면을 중심으로, 국립대학교부터 '시범사업 후 전면 확대' 방식의 무상교육을 추진할 경우 예산 소요액은 100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산촌 출신 학생부터 대학 무상교육으로 출신부터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북 최초의 공공출산·산후조리원 설립 등을 내세웠다. /특별취재반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도내 총선 후보자 '지원사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 29일 전북을 찾아 윤준병(정읍시·고창군) 후보의 정책공약에 찬성하며 힘을 보탰다.

이 상임선대위원장의 전북 방문은 제21대 4.15총선 호남 지역 출마자들에게 대한 지원 일환이다.

이날 오전 군산에 이어 이강래 후보와 함께 남원시 춘향골공설시장을 찾은 이 상임선대위원장은 시장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 전 윤준병 후보와 만나 부창대교 건설, 내장호 국립공원 구역 해제 등 윤 후보의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감을 표시하며 응원문

에 싸인했다.

이어 이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더 이상 공공의료 확충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이강래 후보가 당선되면 국회에서 속도를 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리산천환경전기열차는 이강래 후보가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있을 때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추진에 도움을 줬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강래 후보가 사업추진에 훨씬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취재반